

# 다산포럼

김정남



어릴 때 나는 반도로 되어 있는 한국의 국토는 대륙세력이 해양으로,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할 때 그 길목이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고 배웠다. 개국 이래 1천 회에 가까운 외적의 침입을 받았던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일제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은 이 같은 반도론을 나는 진실이라고 믿었다. 우리 민족의 고달픈 삶은 회피할 수 없는 반운명(半運命)이었기에 “은근은 한국의 미(美)요, 끈기는 한국의 힘”이 되었다는 노남 조운제의 주장이 매우 그럴듯하게 들렸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국토를 놓고 작극적으로 해석했던 사람으로는 김교신과 함석헌이 있다. 김교신은 “갑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자에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역사에 영일(寧日)이 없었다 함은 무엇보다도 이 반도가 동양정국의 중심인 것을 여실히 증거하는 것이다. 물러나 은퇴하기를 불안한 곳이나 나아가 활약하기를 이만한 데가 없다”하였고, 함석헌은 “이 위치는 다이내믹이 같이 능동적인 힘을 가지는 자가 서면 뒤트는 중심이

요, 호령하는 사령탑이요, 다스리는 서울일 수가 있다”고 했다.

과연 한반도는 대륙으로도, 해양으로도 무한히 뻗어 나갈 수 있는 지정학적, 지경학적(地經學的)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한반도는 숙명적인 비운의 땅이 아니라 천

## 세계는 하나의 꽃이다

이 아닌가 싶다. 그는 감옥에서 말 그대로 한중탕 같은 여름철, 더덕더덕 땀피 돌아 난 엉덩이를 마루바닥에 붙이고 하루 열댓시간씩 뚱뚱이 ‘이분 바투타의 여행기’를 우리말로 옮겼다. 이후 ‘왕오전축국전’을 비롯한 문명교류와 관련한 저작들을 이 불모의 땅에 내놓았다.

그에게 있어 실크로드 답사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문명교류의 역사적 여정을 재화하기 위한 순례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의 동행을 지원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정수일은 문명은 총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통해서 융합한다고 확신하

다. 그는 한국이 문명교류학의 종주국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학문적 소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를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문명교류연구소를 창립한 것은 참으로 장하고 경이스러운 일이다. 시작은 미미하나 그 끝은 장대할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45년 전 김 목사가 꾸었던 ‘피부 색깔 대신 인격에 따라’ 평가 받기를 바랐던 그 미국의 꿈을 이루어낸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은 그에 따라 해석이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힘과 야만의 시대, 문명충돌의 시대가 끝나고 문명교류와 융합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는 우여와 굴절을 겪으면서도 문명의 교류를 통하여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바 ‘세계는 하나의 꽃(世界一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제 세계 인류가 네요, 내요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인류 최고요, 최후의 꿈과 희망을 함께 나아가고 있는 이때 ‘누구 사람을 이렇게 하는 정신’, 곧 홍익인민을 우리가 일으켜 세우 문명교류를 전방위로 활성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 힘이 아니라 그 높은 정신과 문명으로 세계의 존경을 받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이 어디 나만의 꿈일까. <연문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정부, 여수엑스포 준비상황 재점검해야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적극 지원과 민자유치 활성화, 해양환경, 사후 활용방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박람회 개최일이 3년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현실에서 안타깝다.

여수박람회에는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여수를 비롯 청정해역 남해안 일대가 국제적 해양관광의 명소로 부상하는 계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여수는 지역발전은 30년 이상 앞당겨 ‘미래형 해양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하지만 준비상황은 순조롭지 못하다. 세계박람회 기본계획은 부실 논란을 낳으며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 의지도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총체적 준비작업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민자유치 부

진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SOC)을 제외한 박람회 시설 대부분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투자자를 찾기 못하고 있다. 엑스포타운과 아쿠아리움, 다목적 공연장, 콘도 등 주요 시설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라면 여수박람회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세계박람회는 지역의 행사가 아니라 국책사업이다.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모두가 어떻게 하면 여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박람회 시설의 사후 활용방안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과 민자유치 부진 등 더 이상의 혼선은 곤란하다.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 정부는 박람회 유치 성공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적 역량을 다시 모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 ‘하루벌이’도 힘든 서민생활 방치할 건가

일용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불황으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해고 근로자들이 돈벌이에 나서고 있지만 하루벌이 ‘막일’도 찾기가 쉽지 않다.

광주시내 일용 근로자들은 하루 일감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일용근로자 대기소에는 매일 꼭 두세백 30~40명이 몰리고 있지만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1~11명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고개를 떨구며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돈 되는 일자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낱은 일감은 찾은 근로자는 일당 7천원을 받지만 대기소 소개료 7천원을 빼면 6천3천원을 쥐게 된다. 운 좋게 한 달에 보름을 일해도 90만원 이상 벌기 힘들다. 유난히 추운 겨울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일용 근로자는 광주 4만8천명, 전남 9만5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1~36% 급증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지난해보다

17.6% 증가한 2만4천여명에 달한다. 일용 근로자 상당수는 실직한 후 일감을 찾아 나선 서민들이다. 지역경제에 본격적인 고용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이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경기 하강이 본격화된다. 한 실직자들에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각종 경제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용직 노동시장엔 찬바람만 가득하다. 정부의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직접적인 실업대책비는 6천88억원에 증액하는데 그쳤다. 실업대책에도 이미 성과가 없는 청소년 사업장 인턴제 등 재탕 삼탕이 수도무적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근로 확대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필요불급한 세출은 과감하게 삭감해서라도 실업률 완화를 위한 대책이 있는 불황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기 어렵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NGO 칼럼

서명원



신뢰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 것이다. 공자는 정치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①덕을 짓(食) ②강성한 군대(兵) ③백성의 믿음(信)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죽음이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 믿음이 없으면 비록 살아있어도 스스로 사는 것이 못 될 것이니 차라리 죽어 편안함만 갖지 못하다. 그러므로 차라리 죽을지언정 백성에게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 즉 믿음이란 본래 사람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군사와 먹는 것과 비교하여 얻고 버릴 바가 아니

미국 메릴랜드대학의 국제여론조사 기관인 세계여론네트워크(WPON)와 한국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으로 실시했는데 한국인이 한국정부를 신뢰하는 비율이 18%에 그쳐 ‘민주주의 위기’라는 의식고조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현수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공개된 내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집트가 84%로 가장 높고, 미국 40%, 프랑스 37%, 영국 32% 등으로 중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19개국 평균이 4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평균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 불신의 늪

정사를 하는 자는 마땅히 몸소 그 백성을 거느려 죽음으로부터 지키고 나라가 위급더라도 반드시 버려서는 안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국민으로 하여금 신뢰를 잃지 말라는 가르침은 비단 공자시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는 더욱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다. 신뢰를 잃으면 정치담당자는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일기 보장이라는 법 제도와 불신임·주민주권 추진과정의 번거로움 때문에 퇴출시키지 못하고 지연됨을 틈타 실추된 신뢰를 만회하려고 갖은 음모와 기만술책을 동원해 국가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올해 UN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세계 각국(19개국)을 대상으로 ‘정부 신뢰도’ 조사결과를 지난 5월 13일 발표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는 맨 끝꼴로 나타나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의 농도를 짐작할 수 있게 했다.

한국사회를 이끌고 갈 젊은 층(20대 8.5%, 30대 4.5%, 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과 응답했음)의 정부에 대한 불신 풍조는 더욱 심각해 한국의 정치인 및 3부요인들의 대오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요청되고 있다.

불신이란 정직하지 못한데서 연유한다. 국민을 상대로 반복해 자행하는 거짓말과 거짓행위, 공약(空約)의 남발은 오직 선거에서의 결과적 승리만을 위한 기만행위다. 경제가든 숨어들고 정략가들만 유행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정략가들이 빙공영사(氷公營私)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 이 사회를 불신의 늪으로 빠지게 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무척 힘든 현실이다. 작금의 총체적 난국에 이 나라의 주인들은 더욱 더 정략가들을 선별할 의무와 거부할 권리를 투철히 인식하고 과단하게 실천해 원천적으로 불신의 늪을 나와 대동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 기고

박현덕



요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달 21일 전남도가 지역경제 살리기 경제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광주시도 지난 1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그만큼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향후 상당기간 동안 세계경제 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IMF는 이번 사태로 인해 금융기관들의 손실 규모가 미국 GDP의 10.1%에 해당하는 1조 4천억 달러로

타입 역할을 해 오던 수출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주요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시장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들면서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건설부문은 미분양아파트 적체, 공공부문을 발주감소, 은행의 대출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중소 건설업체의 도산위험이 커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광주·전남 경제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서비스업도 도소매, 숙박, 음식, 기타 개인서비스 등 자영업 위주로 구성돼 있어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부정적

##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역경제 살리기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손실에 따른 유동성 사정 악화로 금융기관들이 투자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추가, 금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해 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확대, 재정지출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경제도 최근 들어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고 소비·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경기둔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그동안 높은 신장세를 보이며 지역경제의 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금융기관도 급격한 자금 회수, 대출한도 축소, 추가담보 요구 등을 자제하고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기업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한편 지역업체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기업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 기업 간 상생구매 등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비롯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위기를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하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 요구된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장〉

## 실내 수영장 과도한 소독, 인체에 안전하나

수영은 건강을 지켜주는 사계절 스포츠다. 특히 지난번 올림픽 때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후로 수영에 대한 인기는 더욱 커졌다. 그런데 수영장에 가면면 역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른다. 소독제인 염소 때문이다. 물을 소독해 수인성 전염병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은 알지만 수영장에 이겨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또한 그 약물의 안전성은 확실한 지 의문이 든다. 그 이유는 수영장에만 갔다 오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프기 때문이다.

예전에 수영장에서 소독제로 사용되던 염소가 어린이들의 호흡기계통을 손상시켜 천식과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물에 녹아있던 염소가 증발하면서 호흡을 통해 어린이의 폐에 들어가면서 폐부의 보호점막을 해치고 유해물질에 쉽게 감염되도록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수영장은 지금같은 여름철 야외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내에 있다. 그리고 외부와 햇빛이 차단돼 실내공기가 탁할 뿐 아니라 향기 습도가 높고 환기도 잘 되지 않는다.

앞으로 수영장에 사용된 화학 약품의 종류, 사용량 등을 이용객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세리·광주시 동구 서석동

## 중곡산 식용 작약 국산 한약재 단감... 유통관리 단속 시급

부모님이 비농사와 함께 부업으로 작약을 재배한다. 하지만 요즘 작약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알고보니 팔리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중국산 작약 때문이었다. 중국산 작약이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는 것이다.

작년 당국에 신고하고 들어온 중국산 작약은 7t이다. 그리고 국내 농가에서 생산한 작약은 300t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한약재 시장에 나가보면 2천t이나 떠돈다고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이는 수입업자들이 식용으로 신고해 들어온 뒤 우리 나라에서 팔려 국

산 약재라고 속여서 파는 것이다.

국산과 중국산 작약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중국산은 몸체가 단단하고 절편이 굵고 역한 향기가 난다. 증류수에 담그면 증류수가 우리나라 작약은 회색으로 변하지만 중국산은 연한 갈색으로 변한다.

관계 당국은 식용 작약의 한약재 사용을 막기 위해 수입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수입된 작약이 한약재로 바뀌지 않도록 유통 관리가 철저히 이뤄졌으면 한다.

▲최계숙·광주시 남구 원산동

# 無等鼓

40대 이상 한국인 중 태어나서 지금껏 단 한 병의 ‘박카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동야제약의 자양강장제 박카스는 20~30년 전만 해도 귀한 대접을 받았다.

몇년 사이 신제품이 나오면서 다소 출대를 받았는데,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사랑으로 다시 매출이 늘고 있다. 시장에 나온지 무려 111년 역사의 개소활명수도 때마침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들 모두 힘들수록 많이 찾는 서민들의 의약품에 틀림없다.

이 불황에 차마 즐거워하진 못하고 표정 관리하고 있는 제품은 또 있다. 바로 라면이다. 지난 5년째 매출이 떨어지고 있던 라면이 요즘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다.

경제 한파에 수은주까지 떨어지면서 내국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있고 전기매트, 보온 도시락 등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여성들은 비산 화장품 대신 진한 립스틱 하나로 화장을 때우고 있다.

프라이팬과 같은 조리기구도 잘 팔리겠단 한 병의 ‘박카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동야제약의 자양강장제 박카스는 20~30년 전만 해도 귀한 대접을 받았다.

몇년 사이 신제품이 나오면서 다소 출대를 받았는데,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사랑으로 다시 매출이 늘고 있다. 시장에 나온지 무려 111년 역사의 개소활명수도 때마침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들 모두 힘들수록 많이 찾는 서민들의 의약품에 틀림없다.

이 불황에 차마 즐거워하진 못하고 표정 관리하고 있는 제품은 또 있다. 바로 라면이다. 지난 5년째 매출이 떨어지고 있던 라면이 요즘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다.

경제 한파에 수은주까지 떨어지면서 내국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있고 전기매트, 보온 도시락 등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여성들은 비산 화장품 대신 진한 립스틱 하나로 화장을 때우고 있다.

## 불황과 짬돌이



‘왕소금’ 전략이 눈물겹다. 심각한 것은 부자들 도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백화점마다 연 3천500만원 이상 구매자, 매출 상위 1%, 혹은 상위 999명 등 이른바 초우량 고객(VVIP)의 소비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대문호 홀스토이는 부자들을 향해, ‘재산은 버려졌을 때 흙을 기름지게 한다’는 표현을 했다. 얼마나 많은 할형수를 먹으며 속을 달래야 할지, 없는 자들의 한숨만 늘어간다.

/기현호 경제부장 kihh@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시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 화 송 화 부 2200-626 여 령 매 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매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F A X 02-773-933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